

2021년, 힘내자! 대한민국



지난 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회원사 여러분의 광고·홍보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3월 25일 제29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된 수상(受賞) 작품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지친 우리 사회의 애환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광고가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광고상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힘내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이웃 간 이해와 소통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작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제품과 이미지를 고양한 콘텐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 의지가 담긴 광고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제 순환의 원동력으로 경기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을 응원하고 미래를 밝혀 나가고자 하는 광고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뉴노멀'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새로운 광고 문화를 만들어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광고주협회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광고시장의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